

전남 동부권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순천시·美軍 손잡았다

관광활성화 협약 체결  
군인가족 펌투어 시작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을 290일 앞둔 가운데 순천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9일 주한미군 NCOA(준사관 협회), 오리엔탈프레스 코리아(OPK)와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양 단체와 세계적인 명품 관광 순천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한미군 NCOA는 전 세계 미군의 70%를 차지하는 준사관의 친목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며, OPK는 주한미군과 연계해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자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정보 및 편의시설 정보 등을 수시로



조충훈 순천시청(가운데)은 최근 시청에서 조셉 테리 주한미군 준사관협회 회장(오른쪽) 등과 ‘해외 관광객 증대 협약’을 맺었다.

제공하고, OPK는 지역명소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순천시 관광객 유치를 적극 협력한다. 또 주한미군 NCOA와 OPK는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가 돼 적극 협력해 나간다.

주한미군과 가족 등 30여명은 협약 체결 후 정원박람회장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고, 낙안읍성과 선암사·전통 아생차 체험관을

방문해 떡메치기와 다례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업무협약과 펌투어를 통해 순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주한미군과 가족 10만명에게 널리 홍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여수 ‘세계 4대 미항’ 선포”

김충석 시장,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서  
“시드니·리우·나폴리 이은 국제 항구 도약”

여수시가 박람회 기간 중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를 통해 ‘세계 4대 미항’으로 선포된다.

김충석 여수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5기 2년 시정성과 3차년도 운영 방향’ 기자회견을 갖고 “15년 동안 꿈꾸고 준비해왔던 여수박람회가 순항중”이며 “박람회 기간 중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주최로 국제 석학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에서 여수를 세계 4

대 미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호주 시드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탈리아 나폴리 등 세계 미항에 여수를 포함, 제 4대 미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김 시장은 “민선 5기 최대의 과업은 박람회 준비였다”며 “석창교차로 개선사업등을 박람회 개최 전 개통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수없이 찾아다니고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호소해 총사업비 1208억원 중 국비 657억 원을 확보, 석창교차로 개선사업, 충민로 확포

장, 여수시민로, 월내~낙포, 낙포~호명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소를 박람회 전에 모두 개통시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순천~안주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모두 박람회 전에 개통됐으며 특히 이순신대교는 올해 10월 준공예정이었다면 국비 1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 5월 10일 임시 개통함으로써 영남·충청 등의 관광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내의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통해 34건 4조8644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노력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2011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난무한 각종 유언비어와 기대 이하의 관람객 수,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일부 서비스 업계의 그릇된 상행위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등은 아쉬웠다”며 “박람회 성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승용차 안타기 등 시민들의 헌신을 비롯해 요식업과 숙박업계의 자정결의와 요구 합인 등은 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희귀조류 ‘뿔쇠오리’ 여수 백도에서 발견

동북아에 1만마리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지정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희귀조류가 발견됐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여수시 백도에서 멸종위기종 ‘뿔쇠오리’의 새로운 번식지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원은 지난 해 백도 일대에서 생태계 조사를 하다가 ‘뿔쇠오리’로 추정되는 새를 발견하고, 이후 집중 조사를 벌여 최근 이곳에서 ‘뿔쇠오리’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뿔쇠오리’는 몸길이 20cm 안팎의 바닷새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5000~1만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고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바다 위에서 5~10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고 번식기에만 무인도 절벽이나 암반지대에서 생활해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월동지나 서식지 등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공원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구굴도와 백도를 중심으로 조사해 잘 알려지지 않은 뿔쇠오리의 생태적 특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양에 운전면허 시험장 들어선다

광양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선다. 도로교통 관리공단은 최근 광양시 광양읍 덕래리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은 그동안 나주시 1곳에서만 운영돼 전

남 동부권 주민들은 시간과 거리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수년간 도로교통 관리공단에 운전면허 시험장 장가 유치를 요청했다. 공단 측은 시설기준 적합여부, 대중교통 접근

성, 타 시·도 시설과 비교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동부권 운전면허 시험장이 운영되면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은 물론 전북 남원, 경남 남해·하동·사천 등 인근 12개 시·군 약 12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새 얼굴

“시민에 봉사하는 의회상 만들겠다”

이정문 광양시의회의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만들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광양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정문(58·광양읍) 의원은 “의원들간 소통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능력과 권위를 존중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력을 적절하게 지키며 공사(공민)

를 분명히 하는 객관적 사고에 의한 접근 방식으로 투명한 의회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선인 이 신임 의장은 4대 시의장과 광양JC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순자(54) 씨와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갈재’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정읍시, 9.3km 2억원 들여... 탐방객들 이야기가 있는 걷기 명소로

전북대 캠퍼스는 ‘글로벌’

국내의 학생 어우러진 ‘국제 하계대학’ 개강  
미국·프랑스·스페인 등서 50여명 학생 참가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지난 2일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인 ‘국제 하계대학’을 개강했다.

‘국제 하계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국내 및 해외 학생들을 모집해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한국문화 체험 등을 제공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서거석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사와 과목에 대한 소개, 각 국가별 학생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국제 하계대학에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모두 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전북대 학생들과 어울

려 한국어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특강, 한국문화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방학동안 외국 자매결연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Feeling Korea Program)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거석 총장은 “국제 하계대학은 해외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함께 해 ‘글로벌 캠퍼스’의 전형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알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국내 최고의 글로벌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에서 장성군으로 넘어가는 ‘갈재’ 길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 갈재길을 서울 성곽길, 부여 사비길 등 10개소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전체구간은 9.3km로 마을길 3.2km·산길 3km·차도 3.1km로 구성된다. 국비 지원 50%·지자체 부담 50% 등 모두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읍시는 입암면사무소→천원역(조선시대에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숙박시설)터→입암 저수지→군영마을→폐 철도길→굴다리→갈재 구간 4.8km를 담당하며, 장성군은 갈재에서 백양사역에 이르는 4.5k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읍시는 국비와 시비 등 1억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기반정비와 이정표, 종합안내도 및 설명 표지판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일대를 특색 있는 스토리로 엮어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걷기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재(해발 220m)는 호남평야와 전남평야의 국경지대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고, 현재도 국도 1호선, 호남 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고속철도가 관통하고 있다. 갈재길은 조선시대 10개대로 중 하나였던 ‘삼남대로’(해남~서울간 410km) 중에서 옛길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길로 꼽힌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갈재’ 생태탐방로 (9.3km)



부안 위도 앞바다에 ‘바다목장’ 조성

전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부안군 위도면 앞바다에 인공어초 등을 활용해 ‘바다목장’을 조성한다.

총 50억원을 들여 130ha에 만들어 지는 바다목장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없어진 어장을 대체해 어업 기반

을 보존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바다목장이 조성돼 수산자원이 늘어나면 어민의 소득과 해양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장애 학생 해외 현장체험 학습

학부모 등 30여명 대만 학교 견학

전북교육청 경비 지원

전북도 교육청(교육장 김승환)은 지난 26~30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해외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해외 현장체험에는 장애학생 15명과 학부모 15명이 동행했으며, 경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했다.

학생들은 대만의 학교 시설을 견학하고 수업에도 참가했다.

또 양국 학생과 교사간 교류활동도

펼쳤다. 도 교육청은 매년 2차례씩 도내 특수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해외 현장체험학습 대상자를 선발해 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건문을 넓혀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복지 실현과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건강장수 토론회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수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는 3일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구국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단신

군산 시립도서관 ‘학부모 역사 특강’ 열려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7일 오전 10시 2차례에 걸쳐 무료 ‘학부모 역사 특강’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역사의 의미 및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1만원권 지폐 유통을 통한 역사찾기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27일에는 ‘생활속 역사 읽기’로 태극기속 우주의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특강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3일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lib.gunsan.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전북취재본부=박영진기자 nogusu@

정읍시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육군 35사단(사단장 정한기)은 3일 정읍시 산내면 구절초 축제 행사장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가졌다. 이번 유해발굴은 오는 27일까지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부대 장병 등 연인원 2000여 명을 투입해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과 8사단이 공비들과 사투를

벌인 정읍시 내장산과 진안군 운장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35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전북 도내 일원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장수군 장계면 일대에서 1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29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김제시 마니페스토 우수 자치단체 선정

김제시가 2년연속 마니페스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김제시는 “최근 한국마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주관으로 열린 ‘제5회 기초단체장 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 자치단체의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김제시는 공약이행 분야에서 ‘지평선 보리, 금빛 명품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공모, 2011년 ‘위기의 전통농업에서 생명농업으로,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국립 민간육종 연구단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부안 위도해수욕장 7일 개장

변산반도 서쪽에 위치한 부안군 위도해수욕장이 오는 7일 개장한다. 위도 해수욕장은 섬에서 만 느낄 수 있는 1km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위도면 관계자는 “위도의 관문 파장금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공영 버스를 이용한 섬 일주관광

을 통해 아름다운 위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관광의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 시간표는 위도여행 포털사이트(www.iwid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격주터미널 063-581-0023, 위도터미널 063-581-5768).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